
조선왕조실록, 목숨을 걸고 기록한 사실



김찬곤 글 | 권아라 그림 | 144쪽

■ 5, 6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고치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들의 대립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흔히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한다. 왕실 관청은 관청대로 날마다 업무 일지를 썼고, 그것을 달마다 책으로 엮었다. 대통령의 비서실 승정원은 업무 일지 《승정원일기》를 썼고, 춘추관은 조선 임금과 신하들의 업무 일지 《조선왕조실록》을 펴냈다. 또한 왕실 행사나 큰 공사가 있으면 글과 ‘그림’으로 보고서를 남겼다. 이것을 《의궤》라 한다. 오늘날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보고서라 생각하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대부들은 선조가 죽고 나면 갖가지 문집을 엮어 냈다. 그야말로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 할 만큼 기록이 넘쳐난다.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

조선의 방대한 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왜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을 남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들은 과연 후대 사람들을 위해, 후대 사람들이 조선 시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려고 기록을 한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의 ‘역사책’일까?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기록인지, 이 기록을 어떻게 썼는지, 왕의 말과 정치를 날마다 기록한 조선 시대 사관은 어떤 관리인지, 사관은 어떻게 뽑았는지, 실록의 기초 자료인 사초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실록의 편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실록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 많은 실록을 지금까지 어떻게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크나큰 재미일 것이다.

- ▶ 옛 책을 세는 '권'과 책의 차이를 알아보자.
- ▶ 붓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공무원인 사관에 대해 공부해 보자.
- ▶ 실록의 편찬 과정을 조사해 보자.
- ▶ 실록에 자연 현상을 자세히 기록한 까닭을 알아보자.



책 읽기 전 해 볼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춘추관’이 있다. 이곳에 청와대 담당 언론사 기자들이 머무르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인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도 관청 춘추관이 있었다. 오늘날 청와대 ‘춘추관’과 조선 시대 관청 ‘춘추관’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자.

-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청와대 공관 구조’, ‘청와대 구조’로 이미지 검색을 하여 청와대에 있는 여러 관청 구조를 보여 준다.
-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청와대 춘추관’, ‘춘추관’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여 춘추관 모습과 춘추관에서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청와대 춘추관’ 이름의 내력을 찾아보게 한다.

▶ 선생님은 조선 시대 춘추관과 오늘날 청와대 춘추관에 대해 다음의 설명을 들려준다.

예문관이 왕의 말과 명령을 기록하는 관청이라면 춘추관은 조선 왕조의 정치와 지방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정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다. 오늘날의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왕조의실록 편찬은 춘추관에서 맡았다.

오늘날 청와대에도 춘추관이 있다. 이 건물은 1990년에 지었는데, 주로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또 청와대 담당 언론사 기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곳을 춘추관이라 한 까닭은 조선 시대 기록 관청 춘추관과 관계가 깊다. 조선 시대 춘추관 사관들이 조선 왕조의 정치와 역사를 기록했던 것인 만큼 지금의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도 바른 언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역사를 기록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너도 나도 담배를 심다’(95 ~ 99쪽)를 읽고 아래 문제를 풀어 보자.

- 아래 구절은 《광해군일기》에 있는 대목이다. ‘왜관’은 일본인이 머물면서 무역 업무를 보는 관사이다. 이곳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불이 났던 것일까?

부산 동래 일본인 거주지 왜관에 불이 나 집 80칸을 모두 태웠다.

《광해군일기》 186권, 광해 15년(1623년) 2월 15일

- 아래 구절은 《정조실록》에 있는 대목이다. 정조는 백성들이 기름진 땅에 담배와 차를 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조가 이렇게 걱정하는 까닭을 책에서 찾아보자.



정조가 말했다.

“벼는 높고 건조한 땅에 심고 기장은 평평하고 비옥한 땅에 뿌리는가 하면 기름진 땅은 모두 다 담배와 차를 심는 밭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농사가 형편없게 되었고, 이름난 산은 거의 다 불을 질러 밭을 일구고 있으니 곡식 보기가 힘들구나.”

이 말을 듣고 김만이 거들었다.

“담배와 차 재배를 당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년) 11월 30일



▶ '조선왕조실록'이란 이름은?

우리는 조선의 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이라 하지만 이 이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그냥 《실록》라 했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조실록》이라 했다. '이씨가 대대로 왕을 한 왕조의 기록'이란 뜻이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고, 그 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8년 조선 실록 복사본을 낸다. 이때 복사본 책 표지에 붙인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란 이름은 60년 남짓 된 이름이다.

